

# 내 아이 통학길 불법주정차...구청은 '나몰라라'

### 광주 5개 구청 전인 업무 외주→직영화 이후 실적 급감 견인 필요해도 과태료 부과...교통 체증·보행자 안전 위협

#1. 광주 교통경찰 A씨는 출퇴근길 교통지도에 나서면 한숨만 나온다. 상습정체 구간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정차한 차량 견인 업무를 맡은 구청에 견인을 요청해도 꿈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과태료 부과와 견인은 다른 운전자에게 주는 시각적 경고와 요금, 차량 정체 해소, 위반자가 떠난을 불편 등 효과에서 엄청난 차이인데도, 구청 측은 꼭 필요할 때만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2. 직장 맘 이모(33·광산구)씨는 여섯 살배기 아들 귀갓길을 생각하면 가슴이 콩콩 뛰었다. 아침에야 출근 전 어린이집 도로 양쪽에 늘어선 불법주정차 사이를 손잡고 건너면 되지만, 오후에는 주차된 차보다 키가 작은 아이가 혼자 건너야 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어린이 통학로만큼은 즉시 견인으로 강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경고 방송하거나 기껏해야 과태료나 부과 하나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를 민간업체에 맡겨오다 직영화한 이후 실적이 급감하면서 부작용이 터져나오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상습정체구간, 버스 및 택시 승강장 등 견인요청이 필요한데도 기껏해야 4만원짜리 과태료 부과에 그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를 불러오거나 어린이 안전에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도로교통을 관리하는 경찰에서도 "과거처럼 부분별한 견인도 문제지만 꼭 필요한 구간에 불법주정차를 방치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구청을 향해 쓴소리를 행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개 자치구 불법주정차 견인 실적이 총 2만 6064건이던 것이 지난 2012년 1만 6610건, 2013년 4784건, 2014년 289건, 지난해엔 361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지난 2011년 동구 4790건, 서구 8770건, 남구 9208건, 북구 3004건, 광산구 2922건이던 것이 2015년에는 동구 225건, 서구 40건, 남구 53건, 북구 16건,

■ 광주 불법주정차 견인 현황



광산구 27건으로 견인 업무가 개점휴업 상태다.

반면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 건수는 지난 2014년 31만 1513건, 2015년(11월 기준) 44만 959건으로 급증 추세다.

이런 불법주정차 단속 패턴의 변화는 지난 2012년 이후 각 자치구가 견인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가 직영화로 돌리면서 비롯됐다. 민간이 맡을 당시에는 '견인 실적이 곧 회사 이익'이라는 등식이 성립해 마구잡이 견인이 이뤄졌는데, 직영화된 이후에는 각 자치구가 '원상 사고 절차도 복잡한 견인'보다는 과태료 통지서 발부

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영·유아를 둔 부모나 학부모, 운전자 사이에선 불만과 격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 아이 통학 길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원칙적으로 견인한다면 고질적인 위협 요소가 사라져 좀더 안전해질 수 있고, 운전자도 상습정체구간에 세워둔 차량을 즉시 견인한다면 차량 소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이다.

교통경찰들도 구청의 불법주정차 단속 행태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차별적인 견인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사실상 견인 업무에 뒷집지며 과태료만 부과해서는 교통 질서를 확보하지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경찰관 B씨는 "견인업무를 제대로 하려면 여러 대의 견인차, 견인 인력, 차량 보관할 주차장 등 수고가 이만저만 아니고 때로는 주민 원성도 들어야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차량 견인이 필요할 때 과태료 부과로 끝내는 상황이 반복되면 그 부작용은 모든 시민이 떠안아야 한다는 걸 단속기관인 구청이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영암 들녘 '청년♥전남' 29일 영암군 삼호읍 농업테마공원 들녘에 유색 벼를 통해 수놓은 '청년♥전남'이라는 글귀가 시선을 끈다. 전남농업박물관(관장 김우성)은 "일반벼를 심은 녹색바탕은 전남의 친환경 농업을, 유색 벼로 된 글씨는 전남을 이끌 청년들의 열정을, 하트 표시는 청년을 사랑하는 전남도민의 마음을 각각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양부남 광주고검 차장 대구 고검장 직무대리 발령

양부남(55·사법연수원 22기·사진) 광주고검 차장검사서 지난 25일자로 대구고검장 직무대리로 임명됐다.

윤갑근(52·1971) 대구고검장이 '우병우·이석수 의혹 사건'의 특별수사팀장을 맡으면서 임시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양 고검장 직무대리는 윤 팀수팀장의 활동기간 동안 대구고검을 이끈다.

이는 대구고검의 2인자인 차장검사(김 사장) 또한 공석으로, 권도욱 부장검사가 차장검사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기존 김우현 차장검사는 '김사 주식 대박 사건'으로 구속된 진경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대신해 그 자리로 전보됐다.

담양 출신인 양 고검장 직무대리는 담양공고, 전남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검찰청 연구관, 광주지검 형사3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서산지청장, 대구지검 2차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장, 수원지검 1차장검사 등을 역임했다.

검찰내 '특수부'으로 손꼽힌다. 대구와는 '대구지하철 방화 참사'때 대검 수사팀에 파견돼 지하철공사 녹취록 조작 등 사건 은폐와 기자재 납품 비리 의혹을 파헤친 인연이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03  
해질녘 19:02  
출몰 03:43  
몰진 17:38

아침·저녁 쌀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겠다.

◇지역별 날씨 (℃)

광주	구름많음	18/26	보성	구름많음	16/26
목포	구름많음	20/26	순천	구름많음	18/27
여수	구름많음	20/26	영광	구름많음	18/26
나주	구름많음	17/26	진도	구름많음	19/25
완도	구름많음	20/26	진주	차차흐리림	17/25
구례	구름많음	16/27	군산	차차흐리림	18/24
강진	구름많음	19/26	남원	차차흐리림	15/24
해남	구름많음	19/26	홍산도	구름많음	20/23
장성		17/25			

◇바다 날씨

지역	해상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알바다	서~북서	2.0~4.0	서~북서	2.0~4.0
남부	면바다	서~북서	3.0~4.0	서~북서	3.0~5.0
남해	알바다	서~북서	2.0~3.0	서~북서	2.0~4.0
	면바다(동)	서~북서	2.0~4.0	서~북서	3.0~4.0
	면바다(서)	서~북서	2.0~4.0	서~북서	3.0~4.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0:38	06:03
	12:44	18:08
여수	07:47	01:43
	20:15	13:45

◇주간 날씨

31(수)	9/1(목)	2(금)	3(토)	4(일)	5(월)	6(화)
☀	☁	☁	☁	☀	☀	☀
19/26	22/28	23/28	23/28	23/29	23/31	22/30

◇생활지수

- 식중독 주의
- 자외선 높음
- 미세먼지 좋음

## 의대생들 기초의학 기피 심각

### 100명중 2명만 희망 새 의료기술·의학 발전 저해

의대생들의 기초의학 기피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기초의학을 전공으로 삼겠다는 의대생은 100명중 2명에 불과했다.

기초의학은 환자를 진료하는 임상과 목과 달리 해부학, 생리학, 조직학 등의 학의 기초적인 지식을 연구하고 배우는 학문이다. 기초의학이 탄탄해야 의학의 학문적 발전은 물론 임상에서도 새로운 의료기술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기초의학 연구자가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적잖을 정도로 인력부족을 겪고 있다는 문제가 이어져 왔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2013년 전국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 학생 1만 2709명을 대상으로 전공선택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29일 밝혔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건강분야인적자원'(Human resources for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

전체 학생들의 전공과목에 대한 선호도 순위를 보면 내과계가 67.6%로 가장 높았고 외과계가 30.4%, 기초의학은 2%로 나타났다.

기초의학을 선택한 학생들 중에는 의과대생이 의학전문대학원생보다 선호도가 1.63배 높았다. 또 여학생에서는 4학년이 되면 1학년보다 선호도가 63%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 유형성 눈병 주의보

### 광주 1000명당 19.9명 발생...손 잘 씻어야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유형성 눈병 환자가 늘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20일(34주차) 1주간 광주 유형성 각결막염 환자는 1000명당 13.2명이었다.

1000명당 환자 수는 지난달 24~30일(31주) 4.2명을 기록한 뒤 지난달 31~지난 6일(32주) 8.8명, 지난 7~13일(33주)

19.9명으로 크게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19.6명(31주)에서 20.3명(32주), 23.1명(33주), 24.8명(34주)으로 늘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고흥에는 건강한 맛이 있다

깨끗한 바다, 건강한 토양, 정직한 사람들의 정성이 모여져 고흥에서는 365일 건강한 먹거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흥청정마켓**  
www.goheungmarket.com  
온라인에서도 고흥농수축산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고흥군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  
고흥군 만남의 광장 농수축산물 전시판매장에서 안전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고흥군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분들을 위한 명절 선물세트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흥군 동강면 고흥로 4797 TEL. 061)830-5842  
운영시간 09:00~20:30(연중무휴)